경북지역 수산업 종사자의 수산업 의식 분석

김삼곤+ · 박종운 · 이상철*

(부경대학교 · *포항해양과학고)

An Analysis on the Fishery Consciousness of the Fishermen in Kyungbuk Province

*Sam-Kon KIM · Jong-Un PARK · Sang-Cheol LE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Pohang Marine Science High School*

(Received 20 August 2002 / Accepted 20 November 2002)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analysis the fishery consciousness of the fishermen in Kyungbuk province. an issue for the study may be used on activating device of fisheries high school. So,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 fishermen living at the city of Pohang in Kyungbuk province. The treatment of materials are classified by age, level of a school career and by working career. This research evaluated percentage to the frequency of responses to each question and carried out x^2. The statistically signigicant level account for $p<.05$ and made use of SPSS 10.0. The conclusion of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ishermen have little understanding for fishery consciousness, therefore there was needed public activities and life long education.

Second, in order to solve the difficulties of fisheries villages,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have to be presented. It is showed that economically, culturally, and financially, govermental policy should be devised for the purpose of emerging from backwardness of fisheries villages. Third, large portions of economic value should be allocated to fisheries villages by improving fisheries structure. Actually, lower incomes haves have burdened fisheries villagers with more debts. More years of being engaged in fisheries have resulted in more debts. People in fisheries villages regarded incomes as the most important among

+Corresponding author : 051-620-6192, kimsk@pknu.ac.kr

factors in their selecting fisheries as a job. If they earned more money in fisheries village than in metropolises, people on fisheries villages would choose the fisheries an their jobs. Naturally, there will prove to be an increase of number of persons engaged in fisheries. Also, thinking of fisheries as dangerous and heavy should be corrected into the new image by improving work environments and mechanization.

Key words : *Fishery consciousness, Fishermen, Kyungbuk province, Fisheries villagers*

Ⅰ. 서 론

수산업은 지식기반산업 사회에서 경쟁적 가치를 갖도록 하면서 인적자원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향후 이 분야의 인력양성에 불균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적 수준에서 수산업과 수산교육의 새로운 구조적 개편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수산업이 1990년 중반까지는 주변 국가들과 비교 우위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 상황이 많이 변화고 있으며, 또한 수산업이 여러 가지 국가 정책적인 우선 순위에서 여러 산업 부문과의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점차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이 국가적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할 이유는 해양을 대상으로 생산기반이 되어 있으며, 국토 보존과 국가적 식량산업으로서 친수 공간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산업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지역 인력자원 개발을 위한 발전적 방안이 지역 수산업과 연계하여 수산계 고등학교 교육을 국가적 수준에서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산업 인력 구조의 추이를 보면, 1999년(해양수산부) 어가 인구는 322,229명으로 1992년 어가 인구 424,939명에 비해 102,710명의 감소를 보여준다. 또한, 1992년 어업종사자와 어가 호수는 206,624명, 116,165호이었으며, 1999년에는 72,701명, 98,972호이었다. 각각 64.8%, 14.8% 감소하였다. 그리고 1999년(통계청)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농가 인구 9.03%, 어가 인구 0.68%, 1988년의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농가 인구 17.30%, 어가 인구 1.26%로 나타나, 농가 인구 8.27%, 어가 인구 0.58%의 비율 감소를 보여준다. 이것은 각각 이전 비율의 절반 이상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경상북도(이하 경북)는 2000년도를 기준 했을 때 어업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11.5%이다. 경북에서 연안어업 허가 건수는 5,958건이며, 포항시는 2,425건으로서 40.7%이다. 업종별로 보면, 유자망 58%, 통발 32%, 연승 5%, 채낚기 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획어업 허가 건수는 50건이며, 이 중 포항시는 8건으로서 16%이다. 그리고 경상북도 어촌 계수는 147개이며, 이 중에서 포항시는 60개로서 40.8%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어업의 면허는 205건이며, 이 중 포항시가 46.3% 차지하며, 면적은 39.7%이다. 그러므로 경북은 우리나라 중요 수산도의 하나이며, 포항은 경북에서 수산업의 중심적이고 주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북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구룡포종고, 포항해양과하고, 울릉종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거주지의 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국가적 변화에 따른 어촌지역 주민들의 수산업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수산업 및 이들 관련 부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의 활성화와 앞으로 어촌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들이 수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수산계 고등학교 활성화에 기초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 연구 방법 및 설문지 구성

이 연구는 조사, 설문지를 이용하여 경북지역에서 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산업에 대한 의식과 관련한 변인들을 추정하였으며, 또한 이를 분석하여 경북지역 수산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설문지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수산업 종사자는 ① 수산업에 대한 가치관 ② 수산업 직업관 ③ 어촌의 현실 인식 ④ 수산업에 대한 의식에 대해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총 33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이현우・이경준(1988), 이현우(1990), 이경준(1991) 및 김수욱・박은희(1999)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으며,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2001년 6월 18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예비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설문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신뢰도가 낮은 문항은 수정・보완하였으며 문항수를 재조정하였다.

2. 조사 대상 및 자료의 분석

조사 대상은 어촌 주민으로서 수산업 종사자들로 하였으며, 수산업 종사자는 포항지역 및 구룡포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표 1>과 같이 배부한 200부 중에 회수한 설문지는 100부로서 회수율은 50.0% 이었다.

<표 1>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구분	대상 지역	배부	회수
수산업 종사자	구룡포지역	70	34
	포항시내	80	37
	칠포,월포지역	50	29
	합계	200	100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처리는 연구 대상의 특성에 따라 학생은 성별, 학년별, 학과별로 교사는 성별, 학력별, 경력별로, 수산업 종사자는 성별, 학력별, 경력별, 연령별로 SPSS1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산 처리하였으며, 이 연구에 적용된 통계 분석 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χ^2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해석에 있어서 유의 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χ^2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요소는 *를 붙여 구별하였다.

Ⅲ. 연구 결과의 분석

1. 수산업에 대한 가치관

가. 가족원 중 수산업 종사 희망자에 대한 견해

수산업 종사자에게 "가족원 중 수산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는가?" 설문에 관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39.0%가 찬성하였고, 61.0%가 반대하였다.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수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가족원 중 수산업 종사 희망자에 대한 견해

		찬성		반대		N	
		N	(%)	N	(%)		
성별	남자	37	(44.6)	46	(55.4)	83	χ^2=
	여자	2	(11.8)	15	(88.2)	17	6.386*
	계	39	(39.0)	61	(61.0)	100	
학력	초등학교졸	4	(30.8)	9	(69.2)	13	
	중학교졸	3	(12.5)	21	(87.5)	24	χ^2=
	고등학교졸	17	(45.9	20	(54.1)	37	12.842*
	대졸이상	13	(61.9)	8	(38.1)	21	
	계	37	(38.9)	58	(61.1)	95	
수산업 경력	10년이하	21	(43.8)	27	(56.3)	48	
	11~20년	9	(31.0)	20	(69.0)	29	χ^2=
	21년이상	9	(50.0)	9	(50.0)	18	4.178
	계	39	(41.1)	56	(58.9)	95	
연령	30세이하	7	(63.6)	4	(36.4)	11	
	31~40세	13	(41.9)	18	(58.1)	31	
	41~50세	11	(34.4)	21	(65.6)	32	χ^2=
	51세이상	8	(30.8)	18	(69.2)	26	3.947
	계	39	(39.0)	61	(61.0)	100	

(단위 : N-명) *p<.05

이를테면 어촌지역 주민들의 어업관 인지에 관한 조사(이현우, 1990)에서 유사한 설문의 결과에서는 찬성 64.8%, 반대 35.2%로서 변화된 비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수산업의 경영 상황이 변화하고 나빠진다 해도 수산업에 대한 정체성의 인지와 직업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성별, 학력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자는 찬성 44.6%, 반대 55.4%를 나타낸 반면, 여자의 경우는 찬성 11.8%, 반대 88.2%로 나타나, 수산업 종사자의 경우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우가 가족원 중 수산업 종사 희망에 대한 반대가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설문에 대한 찬성의 비율이 초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30.8%, 중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12.5%,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45.9% 이었으며, 대졸이상의 경우는 61.9%로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나. 가족원 중 수산업 종사를 찬성하는 이유

수산업 종사자에게 가족원 중 수산업 종사에 찬성하는 이유를 설문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직업에 귀천이 없기 때문에” 51.2%, “발전 가능성” 34.1%, “수입이 많아서” 7.3%, “어촌 발전을 위해” 7.3% 순이었고, 성별, 학력, 경력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가족원 중 수산업 종사를 찬성하는 이유

		직업에 귀천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많아서		발전 가능성		어촌 발전을 위해		기타		N	
		N	(%)	N	(%)	N	(%)	N	(%)	N	(%)		
성별	남자	18	(47.4)	3	(7.9)	14	(36.8)	3	(7.9)	0	(0.0)	38	χ^2=
	여자	3	(100.0)	0	(0.0)	0	(0.0)	0	(0.0)	0	(0.0)	3	3.083
	계	21	(51.2)	3	(7.3)	14	(34.1)	3	(7.3)	0	(0.0)	41	
학력	초등학교졸	5	(100.0)	0	(0.0)	0	(0.0)	0	(0.0)	0	(0.0)	5	
	중학교졸	3	(75.0)	1	(25.0)	0	(0.0)	0	(0.0)	0	(0.0)	4	
	고등학교졸	6	(35.3)	2	(11.8)	6	(35.3)	3	(17.6)	0	(0.0)	17	χ^2=
	대졸이상	6	(46.2)	0	(0.0)	7	(53.8)	0	(0.0)	0	(0.0)	13	15.519
	계	20	(51.3)	3	(7.7)	13	(33.3)	3	(7.7)	0	(0.0)	39	
수산업 경력	10년이하	12	(54.5)	2	(9.1)	6	(27.3)	2	(9.1)	0	(0.0)	22	
	11~20년	3	(33.3)	0	(0.0)	5	(55.6)	1	(11.1)	0	(0.0)	9	χ^2=
	21년이상	6	(60.0)	1	(10.0)	3	(30.0)	0	(0.0)	0	(0.0)	10	4.178
	계	21	(51.2)	3	(7.3)	14	(34.1)	3	(7.3)	0	(0.0)	41	
연령	30세이하	3	(42.9)	1	(14.3)	3	(42.9)	0	(0.0)	0	(0.0)	7	
	31~40세	8	(61.5)	0	(0.0)	4	(30.8)	1	(7.7)	0	(0.0)	13	
	41~50세	5	(38.5)	1	(7.7)	5	(38.5)	2	(15.4)	0	(0.0)	13	χ^2=
	51세이상	5	(62.5)	1	(12.5)	2	(25.0)	0	(0.0)	0	(0.0)	8	5.412
	계	21	(51.2)	9	(7.3)	14	(34.1)	39	(7.3)	0	(0.0)	41	

(단위 : N-명)

다. 가족원 중 수산업 종사에 반대 이유

가족원 중 수산업 종사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문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수익성이 적어서” 38.0%는 수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이며, “수산업의 인식 부족” 33.3%와 “과중한 노동력” 25.4%로서 수산업에 대한 가치관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발전 가능성 불투명” 29.6%는 수산업의 정체성과 관련 있는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성별, 학력, 경력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가족원 중 수산업 종사에 반대하는 이유

		수익성이 적어서		과중한 노동력		발전 가능성 불투명		수산업의 인식 부족		어업의 천시성		출세 장애		기타		N	
		N	(%)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자	19	(34.5)	15	(27.3)	18	(32.7)	2	(3.6)	0	(0.0)	1	(1.8)	0	(0.0)	55	X^2=
	여자	8	(50.0)	3	(18.8)	3	(18.8)	1	(6.3)	0	(0.0)	1	(6.3)	0	(0.0)	16	3.017
	계	27	(38.0)	18	(25.4)	21	(29.6)	3	(33.3)	0	(0.0)	2	(2.8)	0	(0.0)	71	
학력	초등학교졸	7	(58.3)	3	(25.0)	2	(16.7)	0	(0.0)	0	(0.0)	0	(0.0)	0	(0.0)	12	X^2=
	중학교졸	10	(41.7)	5	(20.8)	6	(25.0)	2	(8.3)	0	(0.0)	1	(4.2)	0	(0.0)	24	
	고등학교졸	9	(37.5)	7	(29.2)	6	(25.0)	1	(4.2)	0	(0.0)	1	(4.2)	0	(0.0)	24	11.805
	대졸이상	0	(0.0)	3	(37.5)	5	(62.5)	0	(0.0)	0	(0.0)	0	(0.0)	0	(0.0)	8	
	계	26	(38.2)	18	(26.5)	19	(27.9)	3	(4.4)	0	(0.0)	2	(2.9)	0	(0.0)	68	
수산업 경력	10년이하	13	(40.6)	5	(15.6)	10	(31.3)	2	(6.3)	0	(0.0)	2	(6.3)	0	(0.0)	32	
	11~20년	6	(30.0)	7	(35.0)	6	(30.0)	1	(5.0)	0	(0.0)	0	(0.0)	0	(0.0)	20	X^2=
	21년이상	7	(50.0)	5	(35.7)	2	(14.3)	0	(0.0)	0	(0.0)	0	(0.0)	0	(0.0)	14	7.419
	계	26	(39.4)	17	(25.8)	18	(27.3)	3	(4.5)	0	(0.0)	0	(0.0)	0	(0.0)	66	
연령	30세이하	4	(66.7)	2	(33.3)	0	(0.0)	0	(0.0)	0	(0.0)	0	(0.0)	0	(0.0)	6	
	31~40세	5	(25.0)	4	(20.0)	8	(40.0)	2	(10.0)	0	(0.0)	1	(5.0)	0	(0.0)	20	
	41~50세	9	(40.9)	4	(18.2)	7	(31.8)	1	(4.5)	0	(0.0)	1	(4.5)	0	(0.0)	22	X^2=
	51세이상	9	(39.1)	8	(34.8)	6	(26.1)	0	(0.0)	0	(0.0)	0	(0.0)	0	(0.0)	23	10.711
	계	27	(38.0)	18	(25.4)	21	(29.6)	3	(4.2)	0	(0.0)	2	(0.0)	0	(0.0)	71	

(단위 : N-명)

2. 수산업에 대한 직업적 가치관

가. 수산업 관련 직업에 대한 반응

“수산업 관련 직업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좋은 직업” 20.0%, “보통” 35.8%, “좋은 직업이 아니다” 44.2% 이었다. 현재 수산업에 종사자 중 44.2%

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근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성별, 학력, 수산업 경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자의 경우 좋은 직업이다. 21.8%, 보통 41.0%, 좋은 직업이 아니다. 37.2% 이었으며, 여자의 경우 좋은 직업이다. 11.8%, 보통 11.8%, 좋은 직업이 아니다. 76.5%로 나타났다.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우 수산업 관련 직업이 좋지 않다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좋은 직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수산업 경력이 많을수록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방안의 예로서 새로운 수산경영 기법, 첨단 수산기술 등 재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표 5> 수산업 관련 직업에 대한 반응

		매우 좋은 직업		좋은 직업		보통		별로 좋은 직업 아님		매우 좋은 직업 아님		N	
		N	(%)	N	(%)	N	(%)	N	(%)	N	(%)		
성별	남자	2	(2.6)	15	(19.2)	32	(41.0)	29	(37.2)	0	(0.0)	78	X^2=
	여자	0	(0.0)	2	(11.8)	2	(11.8)	11	(64.7)	2	(11.8)	17	15.898*
	계	2	(2.1)	17	(17.9)	34	(35.8)	40	(42.1)	2	(2.1)	95	
학력	초등학교졸	0	(0.0)	0	(0.0)	4	(30.8)	7	(53.8)	2	(15.4)	13	X^2=
	중학교졸	0	(0.0)	1	(4.3)	5	(21.7)	17	(73.9)	0	(0.0)	23	
	고등학교졸	1	(2.9)	9	(25.7)	13	(37.1)	12	(34.3)	0	(0.0)	35	33.616*
	대졸이상	1	(5.0)	5	(25.0)	11	(55.0)	3	(15.0)	0	(0.0)	20	
	계	2	(2.2)	15	(16.5)	33	(36.3)	39	(42.9)	2	(2.2)	91	
수산업 경력	10년이하	2	(4.4)	7	(15.6)	18	(40.0)	18	(40.0)	0	(0.0)	45	
	11~20년	0	(0.0)	9	(32.1)	7	(25.0)	12	(42.9)	0	(0.0)	28	X^2=
	21년이상	0	(0.0)	1	(5.6)	8	(44.4)	7	(38.9)	2	(11.1)	18	16.304*
	계	2	(2.2)	17	(18.7)	33	(36.3)	37	(40.7)	2	(2.2)	91	
연령	30세이하	1	(9.1)	3	(27.3)	4	(36.4)	3	(27.3)	0	(0.0)	11	
	31~40세	1	(3.6)	7	(25.0)	13	(46.4)	7	(25.0)	0	(0.0)	28	X^2=
	41~50세	0	(0.0)	4	(12.9)	9	(29.0)	18	(58.1)	0	(0.0)	31	17.847
	51세이상	0	(0.0)	3	(12.0)	8	(32.0)	12	(48.0)	2	(8.0)	25	
	계	2	(2.1)	17	(17.9)	34	(35.8)	40	(42.1)	2	(2.1)	95	

(단위 : N-명) *p<.05

수산업 관련 직업에 관한 부정적인 반응의 이유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이 수산업 관련 직업이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수익성이 적어서” 47.4 %, “과중한 노동력” 31.6%, “해난 사고의 위협” 8.8%, “기술 낙후” 7.0%, “사회적 천시성” 5.3% 순이었다.

성별, 학력, 수산업 경력,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물음에서 부정적 반응에 대한 해난사고 위협은 수산계 교사 35.7%, 학생 36.%인데 비해 수산 종사자는 8.8%에 불과

함을 알 수 있다.

<표 6> 수산업 관련 직업에 관한 부정적인 반응의 이유

		수익성이 적어서		해난 사고의 위협		과중한 노동력		사회적 천시성		기술 낙후		출세 장애		N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자	18	(42.9)	3	(7.1)	15	(35.7)	3	(7.1)	3	(7.1)	0	(0.0)	42	
	여자	9	(60.0)	2	(13.3)	3	(20.0)	0	(0.0)	1	(6.7)	0	(0.0)	15	χ^2=
	계	27	(47.4)	5	(8.8)	18	(31.6)	3	(5.3)	4	(7.0)	0	(0.0)	57	3.108
학력	초등학교졸	8	(66.7)	0	(0.0)	2	(16.7)	1	(8.3)	1	(8.3)	0	(0.0)	12	
	중학교졸	8	(38.1)	4	(19.0)	6	(28.6)	2	(9.5)	1	(4.8)	0	(0.0)	21	χ^2=
	고등학교졸	8	(44.4)	1	(5.6)	8	(44.4)	0	(0.0)	1	(5.6)	0	(0.0)	18	9.973
	대졸이상	2	(50.0)	0	(0.0)	2	(50.0)	0	(0.0)	0	(0.0)	0	(0.0)	4	
	계	26	(47.3)	5	(9.1)	18	(32.7)	3	(5.5)	3	(5.5)	0	(0.0)	55	
수산업 경력	10년이하	13	(48.1)	3	(11.1)	9	(33.3)	0	(0.0)	2	(7.4)	0	(0.0)	27	
	11~20년	5	(38.5)	0	(0.0)	4	(30.8)	3	(23.1)	1	(7.7)	0	(0.0)	13	χ^2=
	21년이상	7	(53.8)	1	(7.7)	5	(38.5)	0	(0.0)	0	(0.0)	0	(0.0)	13	12.100
	계	25	(47.2)	4	(7.5)	18	(34.0)	3	(5.7)	3	(5.7)	0	(0.0)	53	
연령	30세이하	2	(33.3)	0	(0.0)	4	(66.7)	0	(0.0)	0	(0.0)	0	(0.0)	6	
	31~40세	6	(50.0)	0	(0.0)	5	(41.7)	0	(0.0)	1	(8.3)	0	(0.0)	12	
	41~50세	8	(40.0)	3	(15.0)	6	(30.0)	3	(15.0)	0	(0.0)	0	(0.0)	20	χ^2=
	51세이상	11	(57.9)	2	(10.5)	3	(15.0)	0	(0.0)	3	(15.8)	0	(0.0)	19	17.200
	계	27	(47.4)	5	(8.8)	18	(31.6)	3	(5.3)	4	(7.0)	0	(0.0)	57	

(단위 : N-명)

3. 어촌의 현실 인식

가. 어가 부채

수산업 종사자에게 "자신의 어가 경영상 부채가 있습니까?"라고 설문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어가 부채가 있다" 78.4%, "어가 부채가 없다" 21.6%로 어가 경영상 부채가 있는 비율이 높았다. 수산업 경력 및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산업 경력별로 살펴보면, 수산업 경력별로 "10년 이하"와 "11~20년"는 부채가 있다는 반응이 66.7%, 79.3%이었으나, 경력이 21년 이상의 경우는 "있다" 100%로 나타났다. 수산업 경력이 많아질수록 부채가 있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산업도 어선어업 등 수산업 자영사업자, 수산업 영세 상인, 소기업 단위, 중기업 단위, 대기업 단위 등으로 세분하여 경영기법, 기술지도, 법적인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수산업 컨설팅 등 관련 재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이하의 경우는 “부채가 있다”는 반응이 36.4%로 가장 낮았으며, 41~50세의 경우 “부채가 있다”는 반응이 9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 어가 부채의 유무

		있다		없다		N	
		N	(%)	N	(%)		
성별	남자	62	(77.5)	18	(22.5)	80	χ^2=
	여자	14	(82.4)	3	(17.6)	17	0.195
	계	76	(78.4)	21	(21.6)	97	
학력	초등학교졸	13	(100.0)	0	(0.0)	13	
	중학교졸	20	(83.3)	4	(16.7)	24	χ^2=
	고등학교졸	26	(74.3)	9	(25.7)	35	7.360
	대졸이상	13	(61.9)	8	(38.1)	21	
	계	72	(77.4)	21	(22.6)	93	
수산업 경력	10년이하	30	(66.7)	15	(33.3)	45	
	11~20년	23	(79.3)	6	(20.7)	29	χ^2=
	21년이상	18	(100.0)	0	(0.0)	18	8.219*
	계	71	(77.2)	21	(22.8)	92	
연령	30세이하	4	(36.4)	7	(63.6)	11	
	31~40세	21	(75.0)	7	(25.0)	28	
	41~50세	29	(90.6)	3	(9.4)	32	χ^2=
	51세이상	22	(84.6)	4	(15.4)	26	15.061*
	계	76	(78.4)	21	(21.6)	97	

(단위 : N-명) *p<.05

이러한 부채의 원인에 대한 결과는 <표 8>과 같이 “소득이 적어서” 30.1%, “영어비 과다 부담” 25.3%, “교육비 부담” 14.5%, “시설비 과다부담” 14.5%, “정부 시책이 잘못되어서” 13.3%로 나타났으며, 소수의견으로 “의료비 과다 지출” 1.2%, “도시 기업가나 상인의 횡포” 1.2%이었다. 수산업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산업 경력별로 살펴보면, 경력이 10년 이하의 경우는 “영어비 과다 부담” 33.3%, “정부시책이 잘못되어서” 22.2%, “교육비 부담” 19.4%, “소득이 적어서” 16.7% 순이었으며, 경력이 11~20년의 경우는 “소득이 적어서” 37.5%, “시설비 과다부담” 33.3%, “영어비 과다 부담” 12.5%, “정부시책이 잘못되어서” 8.3%이었다. 경력이 21년 이상의 경우는 “소득이 적어서” 50.0%, “영어비 과다 부담” 22.2%, “교육비 부담” 16.7%, “시설비 과다 부담” 11.1% 순이었다. 수산업 ‘경력이 많을수록 어가부채의 이유는 소득이 적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10년 이하는 영어비 과다 부담을 33.3%로 보는 점은 구체적인 연구

가 요구된다.

<표 8> 어가 부채의 원인

		교육비 부담		영어비 과다 부담		소득이 적어서		정부 시책이 잘못 되어서		의료비 과다지출		시설비 과다부담		도시 기업가 상인의 횡포		N	
		N	(%)	N	(%)	N	(%)	N	(%)	N	(%)	N	(%)	N	(%)		
성별	남자	7	(10.4)	17	(25.4)	22	(32.8)	9	(13.4)	0	(0.0)	11	(16.4)	1	(1.5)	67	
	여자	5	(31.3)	4	(25.0)	3	(18.8)	2	(12.5)	1	(6.3)	1	(6.3)	0	(0.0)	16	χ^2=
	계	12	(14.5)	21	(25.3)	25	(30.1)	11	(13.3)	1	(1.2)	12	(14.5)	1	(1.2)	83	10.076
학력	초등학교졸	3	(23.1)	2	(15.4)	7	(53.8)	0	(0.0)	0	(0.0)	1	(7.7)	0	(0.0)	13	
	중학교졸	3	(13.0)	7	(30.4)	8	(34.8)	3	(13.0)	1	(4.3)	1	(4.3)	0	(0.0)	23	
	고등학교졸	8	(10.3)	8	(27.6)	6	(20.7)	7	(24.1)	0	(0.0)	5	(17.2)	0	(0.0)	29	χ^2=
	대졸이상	1	(7.1)	3	(3.8)	4	(28.6)	0	(0.0)	0	(0.0)	5	(35.7)	1	(7.1)	14	25.443
	계	10	(12.7)	20	(25.3)	25	(31.6)	10	(12.7)	1	(1.3)	12	(15.2)	1	(1.3)	79	
수산업경력	10년이하	7	(19.4)	12	(33.3)	6	(16.7)	8	(22.2)	0	(0.0)	2	(5.6)	1	(2.8)	36	
	11~20년	1	(4.2)	3	(12.5)	9	(37.5)	2	(8.3)	1	(4,2)	8	(33.3)	0	(0.0)	24	χ^2=
	21년이상	3	(16.7)	4	(22.2)	9	(50.0)	0	(0.0)	0	(0.0)	2	(11.1)	0	(0.0)	18	26.029*
	계	11	(14.1)	19	(24.4)	24	(30.8)	10	(12.8)	1	(1.3)	12	(15.4)	1	(1.3)	78	
연령	30세이하	0	(0.0)	1	(16.7)	1	(16.7)	3	(50.0)	0	(0.0)	1	(16.7)	0	(0.0)	6	
	31~40세	2	(9.1)	6	(27.3)	8	(36.4)	2	(9.1)	0	(0.0)	3	(13.6)	1	(4.5)	22	χ^2=
	41~50세	5	(16.7)	6	(20.0)	8	(26.7)	5	(16.7)	1	(3.3)	5	(16.7)	0	(0.0)	30	16.774
	51세이상	5	(20.0)	8	(32.0)	8	(32.0)	1	(4.0)	0	(0.0)	3	(12.0)	0	(0.0)	25	
	계	12	(14.5)	21	(25.3)	25	(30.1)	11	(13.3)	1	(1.2)	12	(14.5)	1	(1.2)	83	

(단위 : N-명) *p<.05

나. 수산물 가격격차

수산물 가격격차가 생기는 원인은 <표 9>와 같이 “유통 단계의 복잡성” 34.5%, “중간 상인의 횡포 때문” 32.2%,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수산물의 부패” 17.2%, “유통마진이 높기 때문에” 16.1% 순이었다. 수산업 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경력별로 살펴보면, 경력 10년 이하의 경우 “유통 단계의 복잡성” 45.2%, “중간 상인의 횡포 때문” 31.0%, 경력 11~20년의 경우는 “중간 상인의 횡포 때문” 41.7%, “유통 단계의 복잡성” 29.2%, 경력 21년 이상의 경우는 “유통마진이 높기 때문” 37.5%,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수산물의 부패” 31.3% 순이었다.

수산물 유통체제의 변화 또는 수산물 판매 등과 관련하여 변화가 요구된다.

<표 9> 수산물 가격격차

		유통 단계의 복잡성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수산물의 부패		유통마진이 높기 때문		중간 상인의 횡포 때문		N	
		N	(%)	N	(%)	N	(%)	N	(%)		
성별	남자	23	(31.9)	14	(19.4)	14	(19.4)	21	(29.2)	72	
	여자	7	(46.7)	1	(6.7)	0	(0.0)	7	(46.7)	15	X^2=
	계	30	(34.5)	15	(17.2)	14	(16.1)	28	(32.2)	87	6.054
학력	초등학교졸	1	(11.1)	0	(0.0)	4	(44.4)	4	(44.4)	9	
	중학교졸	9	(39.1)	4	(17.4)	1	(4.3)	9	(39.1)	23	
	고등학교졸	11	(35.5)	9	(29.0)	3	(9.7)	8	(25.8)	31	X^2=
	대졸이상	8	(40.0)	2	(10.0)	4	(20.0)	6	(30.0)	20	15.451
	계	29	(34.9)	15	(18.1)	12	(14.5)	27	(32.5)	83	
수산업 경력	10년이하	19	(45.2)	4	(9.5)	6	(14.3)	13	(31.0)	42	
	11~20년	7	(29.2)	6	(25.0)	1	(4.2)	10	(41.7)	24	X^2=
	21년이상	2	(12.5)	5	(31.3)	6	(37.5)	3	(8.8)	16	16.175*
	계	28	(34.1)	15	(18.3)	13	(15.9)	26	(31.7)	82	
연령	30세이하	4	(40.0)	1	(10.0)	3	(30.0)	2	(20.0)	10	
	31~40세	9	(37.5)	3	(12.5)	3	(12.5)	9	(37.5)	24	
	41~50세	12	(38.7)	5	(16.1)	2	(6.5)	12	(38.7)	31	X^2=
	51세이상	5	(22.7)	6	(27.3)	6	(27.3)	5	(22.7)	22	9.705
	계	30	(34.5)	15	(17.2)	14	(16.1)	28	(32.2)	87	

(단위 : N-명) *p<.05

다. 시설확장의 난점

시설확장의 난점에 관하여 설문한 결과는 <표 10>과 같이 “높은 시설비” 58.3%, “수리비용의 과다” 13.5%, “시설비 융자의 부족” 13.5%, “시설 관리의 어려움” 10.4%, “사후 관리의 미비” 4.2% 순이었다.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이하는 “높은 시설비” 54.5%, “시설 관리의 어려움” 18.2%, 31~40세는 “높은 시설비” 58.1%, “수리비용의 과다” 16.1%, 41~50세는 “높은 시설비” 43.3%, “시설비 융자의 부족” 33.3%, 51세 이상은 경우는 “높은 시설비” 79.2%, “시설 관리의 어려움” 10.4% 순이었다. 수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소모성 시설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점과 선박은 높은 시설비가 소요됨으로 영세 수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라. 어촌 청년의 결혼 장애 원인

어촌 청년의 결혼 장애 원인에 관한 결과는 <표 11>과 같이 “여성이 어촌을 싫어해서” 46.4%, “어촌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26.8%, “어촌 생활이 불편해서” 14.4%, “당사자가 무능해서” 12.4% 순이었다. 성별, 학력별, 수산업 경력, 연령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

산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만 문화생활, 교육 등의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표 10> 시설확장의 난점

		높은 시설비		수리비용의 과다		사후 관리의 미비		시설비 융자의 부족		시설 관리의 어려움		N	
		N	(%)	N	(%)	N	(%)	N	(%)	N	(%)		
성별	남자	46	(58.2)	10	(12.7)	4	(5.1)	10	(12.7)	9	(11.4)	79	
	여자	10	(58.8)	3	(17.6)	0	(0.0)	3	(17.6)	1	(5.9)	17	χ^2=
	계	56	(58.3)	13	(13.5)	4	(4.2)	13	(13.5)	10	(10.4)	96	1.784
학력	초등학교졸	8	(66.7)	4	(33.3)	0	(0.0)	0	(0.0)	0	(0.0)	12	
	중학교졸	14	(58.3)	3	(12.5)	2	(8.3)	4	(16.7)	1	(4.2)	24	
	고등학교졸	19	(52.8)	4	(11.1)	2	(5.6)	8	(22.2)	3	(8.3)	36	χ^2=
	대졸이상	11	(55.0)	2	(10.0)	0	(0.0)	1	(5.0)	6	(30.0)	20	20.266
	계	52	(56.5)	13	(14.1)	4	(4.3)	13	(14.1)	10	(10.9_	92	
수산업 경력	10년이하	28	(58.3)	6	(12.5)	3	(6.3)	5	(10.4)	6	(12.5)	48	
	11~20년	14	(51.9)	5	(18.5)	1	(3.7)	5	(18.5)	2	(7.4)	27	χ^2=
	21년이상	10	(58.8)	2	(11.8)	0	(0.0)	3	(17.6)	2	(11.8)	17	3.251
	계	52	(56.5)	13	(14.1)	4	(4.3)	13	(14.1)	10	(10.9)	92	
연령	30세이하	6	(54.5)	1	(9.1)	1	(9.1)	1	(9.1)	2	(18.2)	11	
	31~40세	18	(58.1)	5	(16.1)	2	(6.5)	2	(6.5)	4	(12.9)	31	
	41~50세	13	(43.3)	5	(16.7)	1	(3.3)	10	(33.3)	1	(3.3)	30	χ^2=
	51세이상	19	(79.2)	2	(8.3)	0	(0.0)	0	(0.0)	3	(12.5)	24	21.665*
	계	56	(58.3)	13	(13.5)	4	(4.2)	13	(13.5)	10	(10.4)	96	

(단위 : N-명) *p<.05

마. 문화 시설 낙후

어촌 지역의 문화 시설 낙후 원인에 대한 결과는 <표 12>와 같이 "어촌 주민과 정부의 관심 부족" 63.9%, "정부 당국의 보조 부족" 15.5%, "어촌 주민의 감소" 15.5%, "어촌 주민의 여가 시간 부족" 4.1% 순이었다. 학력에 따른 유의차가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어촌 주민과 정부의 관심 부족" 61.5%, "정부 당국의 보조 부족" 38.5%, 중학교 졸업자의 경우는 "어촌 주민과 정부의 관심 부족" 83.3%, "정부 당국의 보조 부족" 12.5%,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어촌 주민과 정부의 관심 부족" 61.1%, "어촌 주민의 감소" 25.0%, 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어촌 주민과 정부의 관심 부족" 40.0%, "어촌 주민의 감소" 30.0%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어촌 지역의 문화 시설 낙후 원인을 "어촌 주민과 정부의 관심 부족"의 비중은 줄어들고 "어촌 주민의 감소"에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표 11> 어촌 청년의 결혼 장애 원인

		당사자가 무능해서		여성이 어촌을 싫어해서		어촌 생활이 불편해서		어촌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N	
		N	(%)	N	(%)	N	(%)	N	(%)		
성별	남자	1	(13.8)	37	(46.3)	12	(15.0)	20	(25.0)	80	
	여자	1	(5.9)	8	(47.1)	2	(11.8)	6	(35.3)	17	χ^2=
	계	12	(12.4)	45	(46.4)	14	(14.4)	26	(26.8)	97	1.359
학력	초등학교졸	2	(15.4)	6	(46.2)	0	(0.0)	0	(0.0)	13	
	중학교졸	3	(12.5)	9	(37.5)	4	(16.7)	8	(33.3)	24	
	고등학교졸	6	(16.7)	19	(52.8)	3	(8.3)	8	(22.2)	36	χ^2=
	대졸이상	1	(5.0)	9	(45.0)	7	(35.0)	3	(15.0)	20	12.947
	계	12	(12.9)	43	(46.2)	14	(15.1)	24	(25.8)	93	
수산업 경력	10년이하	5	(10.4)	26	(54.2)	4	(8.3)	13	(27.1)	48	
	11~20년	5	(18.5)	10	(37.0)	8	(29.6)	4	(14.8)	27	χ^2=
	21년이상	1	(5.6)	7	(38.9)	2	(11.1)	8	(44.4)	18	12.024
	계	11	(11.8)	43	(46.2)	14	(15.1)	25	(26.9)	93	
연령	30세이하	1	(9.1)	6	(54.5)	1	(9.1)	3	(27.3)	11	
	31~40세	7	(22.6)	15	(48.4)	4	(12.9)	5	(16.1)	31	
	41~50세	3	(10.0)	11	(36.7)	5	(16.7)	11	(36.7)	30	χ^2=
	51세이상	1	(4.0)	13	(52.0)	4	(16.0)	7	(28.0)	25	8.060
	계	12	(12.4)	45	(46.4)	14	(14.4)	26	(26.8)	97	

(단위 : N-명)

<표 12> 어촌 지역의 문화 시설 낙후 원인

		어촌 주민과 정부의 관심 부족		정부 당국의 보조 부족		어촌 주민의 감소		어촌 주민의 여가 시간 부족		기타		N	
		N	(%)	N	(%)	N	(%)	N	(%)	N	(%)		
성별	남자	49	(61.3)	13	(16.3)	14	(17.5)	3	(3.8)	1	(1.3)	80	
	여자	13	(76.5)	2	(11.8)	1	(5.9)	1	(5.9)	0	(0.0)	17	χ^2=
	계	62	(63.9)	15	(15.5)	15	(15.5)	4	(4.1)	1	(1.0)	97	2.281
학력	초등학교졸	8	(61.5)	5	(38.5)	0	(0.0)	0	(0.0)	0	(0.0)	13	
	중학교졸	20	(83.3)	3	(12.5)	0	(0.0)	1	(4.2)	0	(0.0)	24	
	고등학교졸	22	(61.1)	4	(11.1)	9	(25.0)	1	(2.8)	0	(0.0)	36	χ^2=
	대졸이상	8	(40.0)	3	(15.0)	6	(30.0)	2	(10.0)	1	(1.1)	20	24.125*
	계	58	(62.4)	15	(16.1)	15	(16.1)	4	(4.3)	1	(1.1)	93	
수산업 경력	10년이하	32	(66.7)	6	(12.5)	7	(14.6)	2	(4.2)	1	(2.1)	48	
	11~20년	18	(66.7)	2	(7.4)	6	(22.2)	1	(3.7)	0	(0.0)	27	χ^2=
	21년이상	9	(50.0)	7	(38.9)	2	(11.1)	0	(0.0)	0	(0.0)	18	10.724
	계	59	(63.4)	15	(16.1)	15	(16.1)	3	(3.2)	1	(1.1)	93	
연령	30세이하	4	(36.4)	1	(9.1)	5	(45.5)	1	(9.1)	0	(0.0)	11	
	31~40세	19	(61.3)	5	(16.1)	4	(12.9)	2	(6.5)	1	(3.2)	31	χ^2=
	41~50세	24	(80.0)	2	(6.7)	3	(10.0)	1	(1.0)	0	(0.0)	30	18.527
	51세이상	15	(60.0)	7	(28.0)	3	(12.0)	0	(0.0)	0	(0.0)	25	
	계	62	(63.9)	15	(15.5)	15	(15.5)	4	(4.1)	1	(1.0)	97	

(단위 : N-명) *p<.05

수산업은 많은 분야에서 정부의 관심 부족의 탓으로 하고 있는 점은 고쳐야 할 점이기도 하겠지만 수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을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점이다.

4. 수산업에 대한 의식

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산업 의식에 대한 설문 내용은 <표 13>과 같이 어촌 생활면, 수산업에 대한 가치관과 직업면 및 수산업 경영 · 정책면으로 문항을 분류하였다.

<표 13> 수산업 종사자의 의식

문항내용	아주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표준편차
	N	(%)	N	(%)	N	(%)	N	(%)		
1. 수산업은 해 볼만한 직업이다.	6	(6.3)	40	(42.1)	44	(46.3)	5	(5.3)	2.51	0.70
2. 어촌에는 노동력이 부족하다.	11	(11.6)	73	(76.8)	9	(9.5)	2	(2.1)	2.02	0.55
3.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교통과 통신 시설은 잘 되어 있다.	5	(5.2)	39	(40.2)	51	(52.6)	2	(2.1)	2.52	0.63
4. 수산업은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한다.	21	(21.6)	71	(73.2)	5	(5.2)	97	(100.0)	1.84	0.49
5. 어촌은 도시보다 돈벌이 할 기회가 적다.	7	(7.3)	46	(47.9)	40	(41.7)	3	(3.1)	2.41	0.67
6. 어촌에서는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없다.	16	(16.5)	71	(73.2)	8	(8.2)	2	(2.1)	1.96	0.58
7. 어촌에서는 필요한 물건을 사기 어렵다.	6	(6.5)	67	(72.0)	19	(20.4)	1	(1.1)	2.16	0.54
8. 어촌 생활은 한가한 시간이 없다.	10	(10.8)	66	(71.0)	15	(16.1)	2	(2.2)	2.10	0.59
9. 가능한 한 도시로 이사가고 싶다.	6	(6.5)	50	(54.3)	34	(37.0)	2	(2.2)	2.35	0.64
10. 어촌 생활은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우울하다.	4	(4.3)	48	(51.6)	37	(39.8)	4	(4.3)	2.44	0.65
11. 어업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 믿고 따를 수 있다.	5	(5.4)	17	(18.3)	57	(61.3)	14	(15.1)	2.86	0.73
12. 어업 정책 관계 기관 및 담당자는 진정으로 어민을 위한다.	1	(1.1)	27	(29.0)	55	(59.1)	10	(10.8)	2.80	0.64
13. 영어 자금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충분히 쓸 수 있다.	4	(4.3)	10	(10.8)	63	(67.7)	16	(17.2)	2.98	0.68
14. 수산업 자재(먹이, 치어, 신품종, 어구 등)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살 수 있다.	2	(2.2)	22	(24.7)	60	(67.4)	5	(5.6)	2.76	0.58
15. 어민들은 병이 났을 때 쉽게 치료 받을 수 있다.	2	(2.2)	32	(34.8)	53	(57.6)	5	(5.4)	2.66	0.62
16. 어촌 지역은 환경 오염이 되어 있다.	12	(13.0)	53.	(57.6)	27	(29.3)	0	(0.0)	2.16	0.63
17. 수산업은 자신의 뜻대로 경영할 수 있는 직업이다.	1	(1.1)	26	(28.3)	59	(64.1)	6	(6.5)	2.76	0.58
18. 사람은 어촌에 살면 출세하기 힘든다.	8	(8.6)	61	(65.6)	22	(23.7)	2	(2.2)	2.19	0.61
19. 현행 수산업은 기계화가 잘 되어 있다.	1	(1.1)	35	(38.6)	54	(58.7)	2	(2.2)	2.62	0.55
20. 수산업도 잘만 하면 다른 산업과 같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2	(2.2)	54	(59.3)	34	(37.4)	1	(1.1)	2.37	0.55
21. 수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발전 속도가 느리다.	6	(6.5)	67	(72.0)	20	(21.5)	0	(0.0)	2.15	0.51
22. 수산업을 통하여 포부를 달성할 수 있다.	2	(2.2)	26	(28.0)	60	(64.5)	5	(5.4)	2.73	0.59

어촌 생활면은 22문항 중에서 2, 3, 5, 6, 7, 8, 9, 10, 15, 16문항이 해당되며, 대부분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수산업에 대한 가치관과 직업면은 22문항 중에서 1, 17, 18, 21, 22문항이 해당되며, 그 중 1번 문항인 수산업은 해볼만한 직업이다. “그렇다.” 48.4%, “그렇지 않다.” 51.6%로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 외 문항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수산업 경영, 정책면은 22문항 중에서 4, 11, 12, 13, 14, 19, 20문항이 해당되며, 20번 문항에서 수산업도 잘만하면 다른

산업과 같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렇다.” 61.5% 이었으나, 그 외 문항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산업에 대한 의식과 관련한 변인들을 조사, 분석하여 경북지역 수산계 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료는 조사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산업 종사자는 성별, 학력별, 연령별, 수산업 종사 경력별로 각각 차이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각 문항별 반응빈도에 따라 백분율로 환산하고 반응자의 변인별 차이 분석을 규명하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설문 집단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산업 종사자들의 설문의 내용과 같이 어촌은 한국 사회의 도시화, 산업화의 필연적인 결과이지만 사회적, 문화적 황폐화에 직면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결과를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가족원의 수산업 종사에 반대하였으며, 그 이유는 수익이 적어서로 나타났다.

둘째, 수산업 관련 직업의 부정적인 원인은 수입이 적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민들은 어가 부채가 있었고, 그 대표적인 원인은 소득이 적기 때문이었다.

넷째, 어촌지역의 문화와 복지 시설 낙후의 원인은 어촌 주민의 감소와 정부의 관심부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업 종사자의 수산업 의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촌은 노동력이 부족하다(88.4%), 수산업 경영은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한다(94.8%), 어촌에는 한가한 시간이 없다(81.8%), 어촌 지역은 환경 오염이 되어있다(70.6%), 수산업 경영은 자신의 뜻대로 경영할 수 없다(70.6%), 사람은 어촌지역에 살면 출세하기 힘들다(74.2%), 어촌지역은 기계화가 되어 있지 않다(70.3%), 수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수익이 적다(61.5%), 수산업은 발전 속도가 느리다(78.5%), 수산업을 통하여 자신의 포부를 달성할 수 없다(69.8%), 어촌지역의 교육문제, 생필품 구입, 의료 등의 사회기반 시설 미비로 도시로 이사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60.8%), 그 외 정부의 어업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행정 담당자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업 종사자는 수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수산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체제 등을 통해 해양·수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수산업 의식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홍보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촌 문제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수산업 종사자들의 설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도시지역 보다 사회 · 문화적으로 낙후된 어촌지역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촌지역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확대하고 수산업에 대한 행 · 재정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정부는 수산업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을 함으로서 수산업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산업 종사자에게 보다 많은 수익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수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낮은 수익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수산업 종사자들이 부채를 지고 있었고 수산업 경력이 많아질수록 부채가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수산업 종사자들은 수산업에 종사함에 있어서 수익을 제일 중시했고, 도시에 비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수산업 종사를 선호 할 것이며, 지역 수산인력을 양성하는 수산계 고등학교 지원자도 자연 증가 할 것이다. 또한, 수산업이 위험하고 중노동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작업 환경 개선과 기계화 지원이 요구된다.

Ⅵ. 참고문헌

곽한철, “수 · 해운계 고등학교 교육의 발전 방향”, 수산해양교육연구 제8권 2호, 1996, pp.119～128.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수산 · 해운에 관한 교과), 대한교과서(주), 교육부 고시 1997-15호, 2001.

김삼곤 · 박종운 · 이상철, 경북지역 수산계 고등학교 학생의 수산업 의식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제14권 1호, pp.1～26, 2002.

김삼곤 · 박종운 · 이상철, 경북지역 수산계 교사의 수산업 의식 분석,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요지, pp.143～148, 2002.

김삼곤 · 주수동 · 김성재, 제 7차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구성 방향, 수산해양교육연구 제10권 2호, pp.115～128, 1998.

이경준, 젊은 어민인력 유치를 위한 어촌주민의 생활실태와 요구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제6권 1호, pp.1～9, 1994.

이현우, 어촌지역주민들의 어업관 인지에 관한 고찰, 수산경영론집 제21권 1호, pp.1～19, 1990.

이현우 · 이경준, 수산고등학생의 의식구조 분석, 부산수산대학교 논문집 제40집, 1988.